

# 日本 자체로켓 H<sub>2</sub> 발사 성공, 대형로켓 발사국으로 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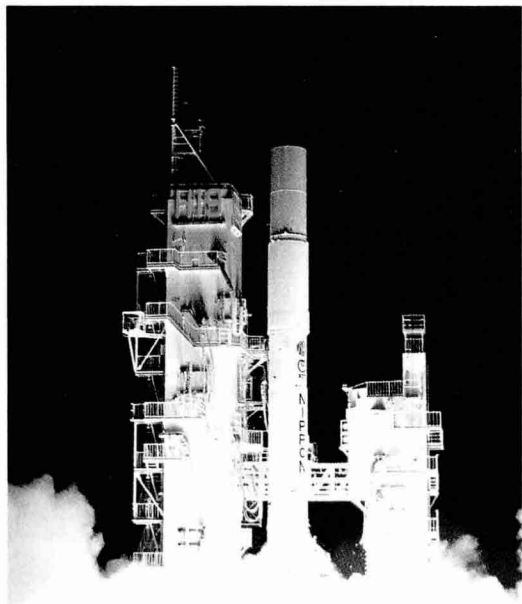
**일본** 이 자체개발한 최초의 상업로켓 H<sub>2</sub>가 2월 4일 오전 규슈 최남단 다네가시마의 국립우주센터에서 성공리에 발사됐다.

이로써 일본은 미국·러시아·중국·유럽에 이어 5번째의 대형로켓발사국이 됐으며 2t까지의 상업위성을 자체적으로 개발, 발사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.

지금까지 일본의 주력로켓이었던 H<sub>1</sub>은 일부 미국의 기술을 도입해야 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사전협의 없이는 외국위성을 발사시킬 수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위성발사사업 국제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. H<sub>2</sub> 로켓 개발에는 10년이 걸렸으며, 약 2천7백억엔(약 2조5백억원)의 예산이 투입됐다.

H<sub>2</sub> 로켓은 향후 일본판 우주왕복선인 「HOPE」(희망) 개발과 달 및 화성 탐사기 발사, 국제협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주정거장에로의 물자수송등에 이용될 계획이다.

한편 이번 로켓발사 성공은 다량의 플루



토늄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핵개발우려를 사고있는 일본이 우주개발을 군사적 이용에까지 연결시키지 않겠느냐는 의심을 받고있다.

# 이스라엘 군수산업 불황속에서 새로운 활로 모색

**무기** 제조능력과 첨단군사기술을 자랑해온 이스라엘은 근년들어 국제무기시장에서 설자리를 잃고 고전해 왔다. 탈냉전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의 지역분쟁이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군비축소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이었다.

그러나 이스라엘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F15 전투기를 구입키로 한 것을 계기로 기술 이전과 美시장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. 이스라엘이 美 맥도널 더글러스社의 F15 도입 대가로 기대하는 차세대용 최첨단기술은 주로 우주·항공분야에 관련된 것들이다.

이스라엘은 이번에 20억불(1조6천억원)

에 이르는 전투기 기종을 F15로 최종결정하기에 앞서 맥도널 더글라스와 그 경쟁사인 F16 제작사 록히드를 오가는 줄다리기 협상을 벌인 끝에 미국으로부터 최대치를 얻어냈다. 이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노린것은 美 우주·항공업체들로부터 하청물량을 확보하는 한편, 최신기술로 만든 새 무기수출에 미국의 원조를 얻어내는 것이었다.

장기불황으로 감원 공포에 사로잡힌 노조와 근로자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충분치 않지만 IAI 등 이스라엘 군수업체들은 「F15 도입」을 불황탈출의 호기로 보고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버리고 있다.